

위대한 유산

농촌 운동에 뜻을 두고 농과대학을 졸업한 뒤, 덴마크에서 공부를 하치고 돌아온 1967년, 내 나이 31살 때였습니다.

청십자 운동과 함께 시골학교를 개설하고 간질병 환자를 위한 장미회를 운영하는 등 의욕적으로 일을 하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김해에 있는 양계장 견학을 마치고 오던 길에 산비탈에서 자동차가 전복되며 자동차 안에 실었던 신나통 2개가 쏟아지며 폭발 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나의 전신은 불덩어리였고 파편에 찢린 눈은 피범벅이었습니다. 거적에 싸여 부산으로 실려가는 동안 뇌리에 떠오른 것은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던 리빙스톤의 말이었습니다.

전신 50%의 3도 화상. 의학상식으로는 회생 불가능한 환자. 복음병원 장기려박사와 의논하던 미국 의사는, 팔, 다리를 절단해야만 살릴 수 있다고 했으나 장박사는 매일 아침 기도회를 열며 치료를 진행시켰습니다.

2년간 입원, 30여 번의 성형수술. 내 몸의 살을 떼어내 화상으로 몽그러진 얼굴에 붙이는 수술이었으나, 나의 얼굴은 세상에서도 가장 흉칙한 도깨비의 형상일 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아빠인데 얼굴은 도깨비야!" 두 아들과 아내 그리고 부모 형제 친구들을 생각하며 몇 번 자살을 기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헬렌 켈러의 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록 일미터 전방도 볼 수 없는 한 쪽 눈이나마 남아있는 것이 감사했고 머리칼도 자라서 타 붙어 없어진 귀를 가리울 수도 있고 걸어다닐 수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상을 닫고 일어났을 때 아내는 과로와 영양실조로 어느 날 길바닥에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에 타 흉칙한 물골인 나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이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가 나의 울타리가 되어 나는 또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시골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가 26세의 젊은 나이로 내게 찾아와 아이들과 나를 맡아 주어, 나는 그때부터 글을 쓰고 번역작업을 하며 강연을 다녔습니다.

나의 인생의 마디마디는 가슴 타 붙는 아픔이고 기적이었습니다. 엄청난 비극 속에 언제나 천사가 함께 했고 그 절망의 조건들은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감사의 조건으로 남았습니다. 인간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적의 이야기가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위대한 나의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 채 규 철 -

교회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99교회표어 "첫 단추를 잘 끼읍시다" City 한인 교회 City Korean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1권10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1999년 9월19일
☎(64-9)262-3717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특사님, 대답해 주세요!

교회를 성전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Q) 예수님 이후 구약의 성전과 그 기능은 그 효력을 잃고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시며 성도 각자가 성전이라고 생각 됩니다. 지금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잘못 된 것은 아닌지요?

A) 신약 성경 안에서는 '전(殿)'이란 한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전, 둘째는 예수님의 몸, 셋째는 믿는 사람들의 몸, 넷째는 믿는 사람 자신, 다섯째는 교회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엡 2:21). 처음에는 '전(殿)'이란 단어가 문자적으로 물리적인 건물에 사용되었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상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쓴 적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 시대처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보통 목적으로 지은 건물과는 구별해서 '기록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건물일 때 '성전'이라고 불러 대조를 보여 줍니다.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을 대치하는 뜻으로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저 예배당, 교회당이지만 마치 구약에서도 '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수장소인 교회건물을 '성전'이라고 불러 쉽게 구별합니다. 언어는 시대적, 문화적, 역사적 환경에 따라 의미가 변합니다. 상징적으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불러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지 건물을 교회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물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 속에서 나타난 이런 표현은 교회 안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북한 교회를 '무너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김상복 목사의 '속 시원한 상담' 중에서-

주 일 예 배

*묵도
Silence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용서의 선언
Proclaim

*찬송
Hymn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신앙고백
Apostle's Creed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송
Hymn

기도
Praye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복음송가
Praising

주일학교
Sunday School

설교
Sermon

설교후 기도
Prayer

찬송
Hymn

*헌금기도
Offertory Prayer

*응답송
Response Song

*위탁의 말씀

*축도
Benediction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25 장

10 (시 27편)

사도신경

391장

마 4:18 -22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처음 제자들-

497 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좋은신 하나님”

(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계속 됩니다)

일자	기도	헌금봉헌	예배안내	Tea time
5	서백화	김효	지윤수	안은주/김성국
12	지윤수	지윤수	한건	김효/유혜경
19		김정훈	김효	안은주/한건
26		한건	한건	김효/지윤수

오후 1:30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다같이

아동부

김성국 목사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인도자

김성국 목사

'99년도 교회표어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실천사항>

*신앙: 기초성경공부이수

*주일예배: 정장으로 예배참석

*생활: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하지도 맙시다

<등록규정>

*3주간 예배,찬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소식

1. 새벽기도회와 등록교인 기초성경공부

이번 한 주간(월-금)동안 새벽기도회를 드립니다. 새벽기도회를 마친 후 등록교인 기초성경공부(4회)를 갖습니다.

2. 금주 구역예배

장소: 서백화 권사 11 Nereus Pl. Mairangi Bay. ☎479-1898

시간: 7:30 pm

3. 등록을 환영합니다.

*최윤희,송정섭 집사 가정(유나,성환)

157 Chelsea View Dr. Birkenhead. ☎418-5005

4. 신앙캠프를 다음 Holiday로 연기합니다.

캠프장소를 섭외하지 못해 다음 방학(12월 31일-1월1일)기간에 신앙캠프를 갖도록 준비하여 실시 하려합니다.

5. 등록교우 회의

다음주일 예배 후 등록교우 회의를 갖겠습니다.

6. 교우소식

지윤수 집사 부친께서 방문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 - 결정적인 순간에 영광 가로채기



그 일에 내가 사용되었다 해도 결국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
(베드로 전서 4:11)